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설립 90주년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도전, 미래 의료 혁신 이끈다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민창기)이 설립 90주년을 맞이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난 6월 16일(화) 오후 3시,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 파크 컨벤션 홀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민창기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구현실장 김평만 신부, 기획조정실장 전영준 교수 등 주요 보직자와 산하 8개 병원 교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 9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1935년 재단법인 경성구 천주교회 유지단이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을 기념해 경성부 영락정 1정목 39번지(현 서울시 중구 저동 1가 39번지) 소재 무라가미 병원을 매입해 '성모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그 토대가 마련됐다. 이후 1936년 5월 11일에 개원하며 CMC 90년 역사의 시작을 알렸다.

성모병원은 척박했던 땅에서 24병상의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현재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전국 8개 산하 부속 병원(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 총 6,000여 병상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의료 네트워크의 가톨릭중앙의료원으로 성장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축사를 통해 "의료기술과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존엄성은 변하지 않는다"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사랑과 봉사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소중한 유산이며, 다음 세대에 전할 귀중한 가치다.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수정의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신비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더욱 굳건히 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창기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난 9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생명존중'과 '환자중심'이라는 가치를 흔들림 없이 지켜왔다"며 "수요자·가치 기반의 의료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지금, 진료와 연구, 교육이라는 우리 기관의 본질에 에너지를 더욱 집중하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윤리적 AI 활용을 통해 시대를 선도하는 변화의 주도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첨단기술과 의학을 융합한 기초의학 연구에 집중 투자하며, 새로운 치료 및 진단 기술 개발로 미래 의료·바이오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의료 AI 윤리 강령을 선포하고 AI 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산·학·연·병의 융합 체계를 기반으로 의료 인력 교육체계의 재설계와 평가체계 고도화, 환자 중심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세계적 수준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며 교육·연구·사업화를 아우르는 융합형 혁신 플랫폼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6~7면〉



한국 산업의학의 반석을 놓은 산업의학연구소 초대 소장 조규상



1991년, 조규상 교수 교황훈장 수여 기념사진



조규상 교수

1962년 가을, 명동성당 주교관 2층. 서독 미제레오르 재단에서 들어온 연구 기자재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출자금, 그리고 서울대교구가 내어준 작은 공간으로 가톨릭 산업의학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산업의학연구소 소장에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초대 위생학교실(현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인 조규상 교수(프란치스코 하비에르, 1925~2013)가 부임했습니다.

1925년 식민지 경성의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난 조규상 교수는 1948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원래 꿈은 실험의학자였으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고, 생계를 위해 조선방직 부속원에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과 마주했습니다. “부상자를 치료해주는 것이 고작이었다”는 그 시절의 안타까움은 훗날 산업의학으로 향하는 작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1953년 서울 한도 후에는 실험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 유학을 계획했으나, 이듬해 공군 소집 영장이 떨어지면서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컸지만, 4년간 머문 항공의학연구소는 또 다른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대한석탄공사 장성탄광에서 진폐증 연구를 시작한 최영태 박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인력과 장비 지원을 요청한 최영태 박사의 부탁으로, 조규상 교수는 일군의 장교를 이끌고 장성탄광에 파견되어 본격적인 산업의학 연구에 발을 들였습니다.

1958년 제대 후에는 가톨릭대 의대 조교수로 임용되어 초대 위생학교실 주임교수가 되었습니다. 훗날 이 일을 두고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나에게 있어 숙명적인 부름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조규상 교수는 노동 환경 조사를 거부하던 기업 경영진을 설득하기 위해 ‘노동자가 건강해야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논리를 펴고, 1963년에는 보건사회부와 협력하여 최초의 전국 규모 노동자 건강 진단을 시작했습니다.

조규상 교수의 작업은 연구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1963년에는 최영태 박사와 함께 대한산업보건협회를 재건했고, 1965년에는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찾아갈 병원조차 없던 현실에서 명동 성모병원 본관 1층에 직업병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제레오르 재단의 지원을 받아 1971년 11월에는 200병상의 가톨릭 산업재해병원을 개원(국내 최초) 하였습니다. 1972년에는 전태일 열사의 희생을 기리는 근로자 복지위원회의 개원에도 앞장섰습니다.

발걸음은 산업의학 너머로도 이어졌습니다. 1975년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산하 ‘한국 행복한 가족협회’ 회장을 맡아, 생명의 존엄성을 외면한 채 추진되던 가족계획 사업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983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을 앞두고는 한국가톨릭의사협회 회장으로서 「가톨릭 의사 헌장」을 제정하고 『의학윤리』 교과서를 발간하였습니다. 1991년에는 모든 헌신을 인정받아,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 훈장을 받았습니다.

조규상 교수는 여든넷이 되던 2008년, 지난 삶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공군에 소집되었을 때는 공부를 중단한다는 억울함이 있었으나, 어디에서나 노력하면 길은 있는 법이다. 아니 역경 속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실험 의학자를 꿈꾸던 한 젊은 의학도의 좌절은 노동자 건강을 위한 일평생의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빛은 실험실에서 노동 현장으로, 다시 가톨릭 의료 윤리의 실천으로 옮겨가 한국 산업의학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글: 인문사회이학과 박승만 교수)

▶ 대학의 명칭은 시절에 따라 성신대학 의학부, 가톨릭대학 의학부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현 공식명칭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또는 가톨릭대 의대로 일괄 표기합니다.

제1회 자랑스러운 가톨릭의대인에 요셉의원 설립자,故 선우경식 원장 선정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2년간 고락을 함께한 ‘쪽방촌 슈바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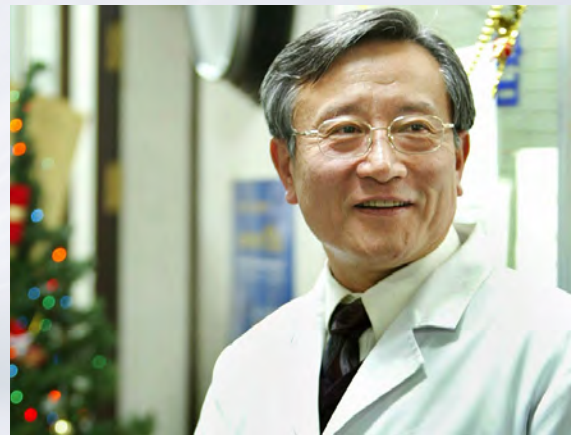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이 제1회 「자랑스러운 가톨릭의대인」으로 요셉의원 설립자이자 초대 원장인故 선우경식 원장(의대 10회)을 선정했다. 제1회 자랑스러운 가톨릭의대인으로 선정된故 선우경식 원장의 부조상은 지난 6월 16일(화요일) 오후 2시,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의료원장 민창기 교수) 설립 90주년 기념식에 앞서 처음 공개됐다.

이날 공개식에는 민창기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구현실장 김평만 신부, 기획조정실장 전영준 교수, 이동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장, 이선미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장, 장석일 가톨릭대 의대 총동문회장, 김정만 가톨릭대 의대 10회 동기회장, 고영초 요셉의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자랑스러운 가톨릭의대인」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을 발굴해, 그 공로와 주요 업적을 기리고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새롭게 제정됐다.

故 선우경식 원장은 가톨릭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킹스브룩 유대인 메디컬 센터에서 연수를 받았다. 이후 1987년에 무료 자선병원인 ‘요셉의원’을 설립해 2년간 운영하며

노숙인과 행려병자 등 약 42만 명을 진료했다. 말년에는 위암 투병 중에도 마지막까지 인술을 실천하며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생명존중의 정신을 구현했다.





우울증 예방, '무엇'이 아닌 '어떻게' 먹느냐에 달렸다

우울증 예방 식사 3원칙 ... “아침먹기, 규칙적 식사, 다양한 식단” 제시



채정호 교수, 태혜진 교수(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 태혜진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교신저자 정신건강의학과 채정호 교수)이 식사 패턴의 규칙성과 다양성이 정신건강의 핵심 요인임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 성인 21,568명을 분석했다. 그 결과, 주요 식사가 불규칙한 성인은 규칙적인 성인에 비해 우울 증상을 경험할 위험이 약 1.55배 높았다. 이 연관성은 소득, 교육, 운동, 기저질환 등 다양한 변수를 보정한 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됐다. 임상적으로 우울 증상을 보인 집단(전체의 5.2%)은 불규칙 식사 빈도와 아침 결식 비율이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연구팀은 우울증을 완화하거나 악화하는 요인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곡류·채소·과일·육류 등 6개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해 식사 다양성을 높일수록 불규칙 식사가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했다. 반면 식사 다양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불규칙 식사의 악영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아침 식사는 '정신건강의 완충막'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침을 거르는 사람일수록 불규칙 식사와 우울 증상의 연관성이 더욱 강화됐다. 연구팀은 아침 식사가 하루 대사 리듬과 세로토닌·코르티솔 분비를 안정화해 정서 조절을 돕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하위 집단 분석에서는 남성, 흡연자, 야식 습관이 있는 성인에게서 불규칙 식사의 영향이 더 두드러졌다.

이번 연구는 향후 '무엇을 먹는가'뿐만 아니라 '언제 먹는가'가 건강과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시간영양학 기반 정신건강 중재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며, 결과는 정신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IF=4.9)에 게재됐다.



“폐암은 하나가 아니다”, 흡연·폐기종 여부에 따라 압축 면역환경 달라

면역 유전자 770개 분석... 동일 폐선암 내 면역환경 이질성 규명



임정욱 교수, 사영조 교수, 김태정 교수(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임정욱 교수팀(흉부외과 사영조 교수, 병리과 김태정 교수)은 폐기종이 동반된 경우 염증성 면역 신호가 더 두드러지는 양상을 확인, 폐암 치료에서 환자 개인의 폐 상태와 종양 주변 면역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암세포의 유전자 변이나 병기 등이 폐선암 치료의 중심 기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암 진행과 치료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종양미세환경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흡연 및 폐암 발생과 밀접한 폐기종이 환자의 면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정밀치료의 중요한 단서다.

연구팀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폐선암으로 수술받은 환자 12명의 조직을 ▲비흡연·비폐기종군 ▲흡연·비폐기종군 ▲흡연·폐기종군으로 나누어 면역 전사체 분석을 시행하고, 770개의 면역 관련 유전자 발현 차이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세 그룹은 서로 다른 면역 관련 유전자 발현 양상을 보였다. 흡연력은 있으나 폐기종이 없는 환자군에서는

SFRP1, SERPINB5, IL6 발현이 증가한 반면, 흡연력과 폐기종을 모두 가진 환자군에서는 KIR2DL3, WNT2B 등과 함께 조직을 변형시키는 효소 및 염증 신호 유전자(MMP7, TDO2, CCL18)가 유의하게 증가했다. 또한 흡연·폐기종군에서는 인터루킨-17 신호경로가 상대적으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더불어 폐에서 산소가 혈액으로 이동하는 능력인 폐확산능은 IL-6, IL-6R 등 면역 관련 유전자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폐 기능 저하 정도와 종양 주변 면역 환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

연구는 분자생물학 분야 국제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IF=4.9)에 게재됐다.



의료기관 종사자, 일반 직장인보다 결핵 발병 위험 더 높아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 위험 대규모 코호트 분석



명준표 교수, 이연희 교수(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명준표 교수팀(제1저자 이연희 연구교수)이 일반 직장인을 대표하는 교육기관 종사자와 비교했을 때,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 발병 위

험이 유의하게 높다는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데이터를 연계해 연령, 성별, 잠복결핵 검사(IGRA) 결과가 유사한 의료기관 종사자 203,959명과 교육기관 종사자 203,959명을 1:1로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잠복결핵 양성 상태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 발생률은 10만 명당 245.5명으로, 교육기관 종사자(77.0명)보다 훨씬 높았다. 위험비 분석에서는 잠복결핵 양성인 의료기관 종사자가 교육기관 종사자보다 결핵 발생 위험이 약 2.18배 높았으며, 잠복결핵 음성 상태에서도 의료기관 종사자의 위험이 1.76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의료기관 근무'와 '잠복결핵 양성'이라는 두 위험 요

인이 동시에 존재할 때 결핵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초과 위험의 약 67%가 이 두 요인의 결합에 따른 것이었다. 연구팀은 초기 검사에서 음성이었더라도 근무 중 새로운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 환경 자체가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 발생률이 높다고 밝힌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인 결핵 관리와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국제학술지 《ERJ Open Research》(IF=4.0)에 게재됐다.



삼킴의 권리를 찾아주는 재활의학, 연하장애의 치료와 제도적 과제를 말한다

부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임선 교수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연하장애(삼킴곤란)’는 고령화 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질환이다. 음식물이 기도로 잘못 넘어가 발생하는 흡인성 폐렴은 노인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지만, 여전히 대중적인 인식은 낮다. 독일 연하내시경검사(FEES) 자격을 바탕으로 임상 현장에서 연하장애 환자들을 치료해 온 부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임선 교수를 만나 질환의 위험성과 제도적 과제를 짚었다.

연하장애와 전조증상

연하장애는 암 등으로 식도가 막히는 구조적 문제와, 뇌졸중이나 노화로 인해 근육과 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겨 삼키기 어려워지는 ‘신경원성 연하장애’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신경원성 연하장애가 재활의학과, 그리고 임선 교수가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영역이다. 특히 구강 근육 기능이 저하되는 ‘구강 노쇠’를 겪는 고령 환자의 경우, 저작 기능 약화로 인해 음식을 온전히 씹지 못한 채 삼키게 되어 질식 사고의 위험이 크다.

일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조 증상은 식사 후 목소리가 가래 낀 듯 젖어 들리는 ‘젖은 목소리(wet voice)’ 현상이다. 또한 평소보다 식사 시간이 현저히 길어지거나, 음식을 입에 오래 머금고 있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서둘러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폐렴은 우리나라 고령층에서 암·심장질환과 함께 대표적인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특히 65세 이상 폐렴 사망자가 전체 폐렴 사망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음식물이나 침 등이 기도로 흡인되면서 발생하는 ‘흡인성 폐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따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폐렴으로 집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드러나지 않지만, 연하장애는 고령층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요한 숨은 요인입니다.”

원인 질환별 맞춤형 재활과 검사

연하장애는 원인 질환에 따라 재활 접근법이 다르며, 연하장애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해 비디오투시연하



검사나 내시경적 연하검사(FEES)가 활용된다. 특히 FEES는 코를 통해 가느다란 내시경을 넣어, 환자가 실제로 음식을 삼키는 순간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검사다. 음식이나 침이 기도로 새어 들어가는지, 입안과 목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를 진행한다.

“뇌졸중 환자는 뇌가소성을 활용한 재활 치료 접근이 효과적이고 근감소증이 동반된 노인에게는 구강 강화 훈련이 필요하지만, 학습이 어려운 치매 환자는 보호자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연하장애의 원인에 따라 재활의 방향을 잘 잡아야 끝까지 입으로

먹는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제도의 사각지대와 콧줄에 대한 오해

부천성모병원은 뇌졸중 환자나 흡인성 폐렴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단계별 연하곤란 식이를 제공하는 윈프로세스를 갖췄지만, 국내 전반적인 의료 제도는 개선할 점이 많다.

먼저 ‘연하곤란 선별 평가’, ‘연하곤란식’, ‘환자 교육’에 대한 수가가 없다. 병원에서는 일관된 점도의 특수 환자식을 제공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지만, 보상은 일반 식사와 동일하다. 또한 퇴원 후 보호자가 관리법을 몰라 일반 죽을 먹이다 재입원하는 일이 반복되는데도 교육 수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콧줄 장기 착용과 관련된 정서적 거부감과 잘못된 인식 또한 개선해야 할 과제다. 외국의 의료지침에선 식도 손상 등의 위험성을 고려해 장기 영양 공급이 필요한 경우 위루관 시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위루관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콧줄을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환자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사회 전체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임선 교수의 제안이다.

부천 환경에 맞춘 스마트 정보화 전략

최근 부천성모병원 정보전략부원장으로 임명된 임선 교수는 임상과장과 부원장으로서의 계획을 각각 밝혔다. 재활의학과장으로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 중인 부천 지역의 특성에 맞춰, 연하장애를 가진 고령 환자의 근감소증과 노쇠, 그리고 이로 인한 낙상 위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프라가 부족한 소아 재활 분야를 강화해 지역의 대학병원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다하고, 최신 AI 기술을 도입해 뇌가소성을 활용한 뇌졸중 마비 개선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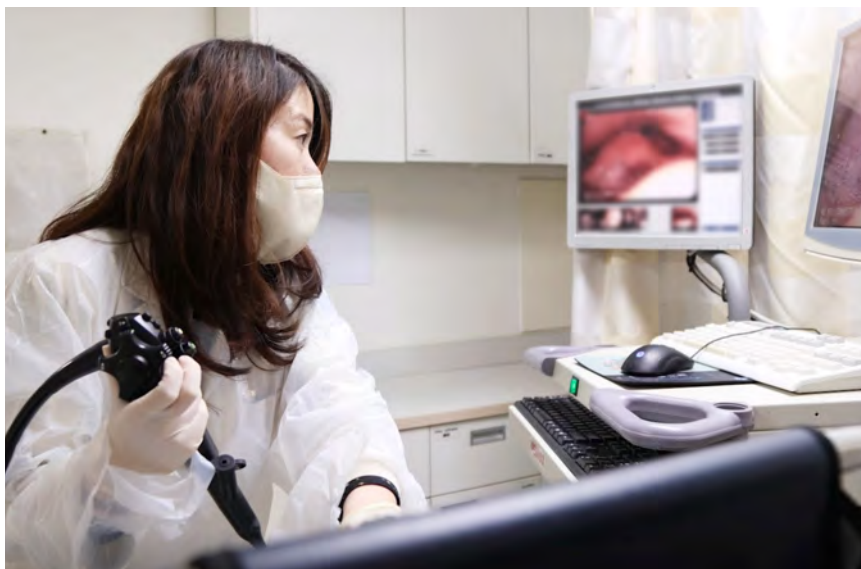
정보전략부원장으로서 데이터와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병원의 본질인 ‘환자 중심’ 가치를 지키는 데 기여하도록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환자 경험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부천성모병원의 저력은 의료진의 따뜻한 대면 진료와 깊은 소통에서 비롯된 만큼, 새로운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하더라도 지역 환자들의 현실적 진료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 신호를 방치하지 마세요

임 교수는 삼킴의 불편함을 당연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작은 신호라도 느껴진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거듭 당부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진단하는 것만으로도 흡인성 폐렴과 같은 합병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 음식을 삼킬 때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진다면, 그 불편함을 자연스러운 노화로만 여기며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신호일 때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흡인성 폐렴과 같은 큰 합병증을 막고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특히 뇌졸중 환자의 경우, 3개월간의 재활 치료에도 삼킴 기능의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하장애 전문가에 의한 정밀 평가와 보다 전문적인 치료 개입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임선 교수가 FEES 검사를 시행하는 모습



슬픔과 기쁨을 연결하는 다리,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대전성모병원 인공신장실파트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김경옥 책임간호사

병원 안에서 슬픔의 가장 깊은 골짜기와 기쁨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다. 대전성모병원 인공신장실에서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직무를 수행 중인 김경옥 책임간호사의 이야기다. 한쪽 손으로는 남겨진 유가족의 이별 눈물을 닦아주고, 다른 쪽 손으로는 수혜자의 새 생명을 지탱해야 하기에 이들이 짊어지는 마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타인의 삶을 다시 숨 쉬게 만드는 장기이식 코디네이터의 여정을 전한다.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93년 2월 대전성모병원에 입사해 응급실, 기획팀, 홍보팀, 정형외과 코디네이터, 신경외과 중환자실을 거쳐 현재 인공신장실까지 33년째 근무 중인 간호사입니다. 배움에 즐거움을 느껴 보건학 박사과정 등을 수료했고, 원내 QI와 CEI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체득한 노하우는 학생들과 프리셉티들에게 전수했습니다. CMC 통합 홈페이지 구축, 대전의료관광 국제 컨퍼런스(DCC), 2015년 세계간호사대회 자원봉사 등 병원 안팎으로 경험을 확장해 왔으며, 현재는 투석 간호와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직무를 수행 중입니다.



'장기이식 코디네이터'가 병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투석 환자들에게 장기이식은 삶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이자 평생의 염원입니다. 코디네이터는 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수술이 성사되도록 대기자를 관리합니다. 면담부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 등록, 정기 검사와 데이터 업로드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환자의 기회를 준비합니다. 반대로 뇌사 추정자가 발생하면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과 함께 유가족을 면담하고, 기증 확정부터 뇌사 조사, 뇌사판정위원회 개최, 기증자 예우를 위한 '아너워크(Honor Walk)' 예식까지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후 수많은 진료과와 전국의 병원, 국가 기관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기에, 이 거대한 타임라인을 실시간으로 조율하는 메인 컨트롤 타워이자 중개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디어 속 장기이식 코디네이터의 모습과 실제 현장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미디어는 극적인 순간과 수술 성공의 감동에 초점을 맞추지만, 현실은 평균 대기 기간만 10년이 넘는 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투석 환자들의 서사는 한 편의 장기전입니다. 코디네이터의 현실 역시 시간에 쫓기며 끝없는 행정적·법적 절차를 확인하고 서류를 검토하는 묵묵한 루틴에 가깝습니다. 관계의 깊이도 다릅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환자와 수년, 수십 년을 정기적으로 만나며 그들의 성격, 가정형편, 식습관까지 공유하는 제2의 가족이 됩니다. 또한 코디네이터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진료과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타 병원과의 동선을 기획하며 현장을 이끄는 연출가입니다. 송고할 말바닥에는 밤샘 근무와 육체적 피로, 보호자의 거절을 감내해야 하는 묵직한 감정노동이 깔려 있습니다.



기증이 결정된 후 수술이 끝나기까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코디네이터만의



숨은 업무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장기 기증이 확정되는 순간 코디네이터는 타임어택에 돌입합니다. KONOS에 기증자 정보를 입력함과 동시에 전국의 수혜자 병원 코디네이터들과 연락을 취합니다. 각 장기별 적응을 위해 전국의 외과 의사들의 시간을 조율하고, 장기가 골든타임 내에 이송될 수 있도록 KTX 좌석 확보, 119 구급차 동선 조율, 소방헬기 섭외까지 교통 사령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법적 서류들을 완벽하게 구비해야 하며, 유가족을 대신해 병원비 수납 절차나 장례식장 연계 등 사후 처리를 조용히 해결합니다. 가장 엄숙한 순간은 모든 수술이 끝나고 의료진들이 떠난 직후입니다. 기증자의 상처를 봉합하고 시신을 복원하여 장례식장으로 인도하기까지,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유가족의 슬픔을 끝까지 받아내는 최후의 한 사람이 바로 코디네이터입니다.



근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작년 8월 출근길에 넘어져 발등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수술을 기다리던 그때, 중환자실에 뇌사 기증자가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정형외과 교수님께 수술을 며칠만 미뤄달라고 말씀드리고 바로 일하러 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중환자실을 정신없이 오가는 동안 부러진 발등의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고, 오직 이 고귀한 기증이, 누군가의 마지막 선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정 무렵까지 대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혜 의사를 묻고, 새벽녘 교차검사를 의뢰한 뒤에야 병실로 돌아와 쓰러졌습니다. 내가 환자가 되어 행했던 그날의 업무는 코디네이터의 가치와 책임감을 뼈에 새겨준, 제 33년 간호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장기기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이 길을 꿈꾸는 후배 간호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고통스러운 순간 타인을 위해 기증이라는 선택지 앞에서 계신 가족분들의 마음의 무게를 제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주저함과 두려움은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장기기증은 한 인간의 소멸이 아니라, 누군가의 숨결과 맑은 눈빛, 힘찬 심장으로 이 세상에 여전히 살아 숨 쉬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부활입니다. 그 따뜻한 기적을 믿고 용기를 내어주셨으면 합니다. 후배 간호사들에게, 우리는 병원 안에서 슬픔의 가장 깊은 골짜기와 기쁨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연결하는 다리(Bridge)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한쪽 손으로는 이별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른 쪽 손으로는 새 생명의 플러그를 꽂아야 하기에 단단한 마음가짐이 필수적입니다. 자부심을 품고 함께 서 주기를 희망합니다.

김경옥 책임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THE CATHOLIC UNIV. OF KOREA CATHOLIC MEDICAL CENTER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의료 기술과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생명의 존엄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사랑과 봉사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의 소중한 유산이며, 다음 세대에 전할 귀중한 가치다.”

“90주년을 맞이한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앞으로도 생명을
수호하고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의료 선교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바란다.”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수정의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신비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더욱
굳건히 서기를 바란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난 9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생명존중’과 ‘환자중심’이라는 가치를
흔들림 없이 지켜왔다”

“수요자·가치 기반의 의료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지금, 진료와 연구, 교육이라는 우리 기관의 본질에
에너지를 더욱 집중하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윤리적 AI
활용을 통해 시대를 선도하는 변화의
주도자가 되겠다”



기념사 전문은
QR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업적 우수 교원상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은 연구 업적이 우수한 교원을 발굴하고 교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
기 위해 매년 연구 업적 우수 교원 포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기념식에 맞춰 연구 업적 우수
교원에 대한 시상식이 개최됐다.

금년도 ‘성의 우수 연구자상’에는 구희범 교수(성의교정 의생명과학교실)가 IF 누계 최고점
(55.15)으로 수상자에 선정됐다. 또한 지난해 《GUT》(IF=25.8)에 논문을 등재한 김태민 교수(성
의교정 의료정보학교실)는 최고 IF를 기록해 ‘성의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게 됐다. ‘성의 논문 피
인용상’은 김진성 교수(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가 이름을 올렸다.

이날 함께 진행된 ‘유선희 데레사 암 연구 학술상 시상식’에서는 임정욱 부교수(여의도성모병원
호흡기내과)와 김지윤 부교수(성의교정 약리학교실)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본 학술상은 유방
암으로 임종한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유족이 본교 의과대학에 기부한 연구기금으로 2012년 제
정되어 암 연구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를 수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연구업적우수교원



2026년 CMC 영성구현상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구현상은
구현을 장려하고 확산하기 위한 목
대해 시상을 진행하며, 수상자는 영
을 추천받아 CMC 영성위원회의 심

우수상



부천성모병원 의공학팀은 의료장비 관리 전
문조직으로서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확보에
기여해 왔으며, 약 20년간 의료장비 점검 봉사활
동을 지속하며 기술 기반의 생명존중 가치를 실
천해 왔다.

우수상

개인(정체성 부문)

여의도성모병원 박남용
UM은 약 25년간 혈관조영실
응급 On-call 업무를 수행하
며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
로 하는 직무 수행을 지속해
왔다.



1936~2026

90
주년가톨릭중앙의료원
민창기 의료원장

(1면에 이어)

설립기념식은 영성구현상 시상, 회갑교수 수연금 증정, 40년·35년·30년 근속 교직원 표창, 우수교육과정상, 연구업적우수교원상, 간호대학 우수임상실습지도자상 시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피며 사랑에 찬 의료봉사를 베풀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영성을 업무 현장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한 팀과 개인에게 수여되는 영성구현상 대상은 성빈센트병원 조직문화혁신위원회가 수상했다. 단체부문 우수상은 부천성모병원 의공학팀과 은평성모병원 성가동아리 라우다토 시(Laudato Si)가, 개인부문 우수상은 여의도성모병원 영상의학팀 박남용 UM, 부천성모병원 총무팀 원창덕 JM, 대전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이상지 교수가 공동 수상했다.

이어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임상실습 최우수병원), 내과학교실 내분비내과, 신경과학교실(우수 핵심필수상), 재활의학교실(우수 특과과정상),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정하린 부교수,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김예니 조교수(우수 교수상), 질병과치료의원리, 응급·중환자, EBM2(우수 단위과정상), 일반생물1, 의학사(우수 교과목 부문상),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이성범 교수(OMNIBUS 교육과정상) 등에 대한 ‘2026년 우수교육과정상’ 시상도 진행됐다.

또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교실 구희범 교수(성의 우수 연구자상), 의료정보학교실 김태민 교수(성의 최우수 논문상),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김진성 교수(성의 논문 피인용상), 여의도성모병원 임정욱 부교수, 성의교정 약리학교실 김지윤 부교수(유선희 데레사 암 연구학술상)에 대한 표창도 함께 수여됐다.

이와 함께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우수 임상실습지도자상’ 시상도 진행됐다. 서울성모병원 김정은·조하영·김희정·정진 UM(Unit Manger) 간호사, 여의도성모병원 김정희 팀장 간호사, 장재희 UM 간호사, 은평성모병원 하정희·박경미·이은옥·신영지 UM 간호사가 개인상을 수상했으며, 여의도성모병원 13층 Unit이 부서상을 받았다.

1991년 제정된 CMC 최고 권위의 상으로 기관차원에서 영성적인 상이다. 매년 정체성, 진료, 연구, 교육, 경영 5개 부문에 영성구현 공적이 뛰어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부서/단체 및 개인을 거쳐 선정한다.

부서/단체(정체성 부문)



은평성모병원 라우다토 시는 교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된 성가 공동체로서 병원 전례와 주요 행사에서 성가 봉헌 활동을 지속하며 공동체 중심의 영성문화를 확산시켜 왔다.

대상



부서/단체(경영 부문)

성빈센트병원 조직문화혁신위원회는 병원장 직속 참여형 조직으로 출범해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 혁신 활동을 통해 교직원 간 신뢰와 소통 문화를 확산시켜 왔다. 조직문화를 단순한 복지 활동이 아닌 병원 운영과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인간존중경영과 협업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장려상



의정부성모병원 간호부는 약 20년간 ‘공감간호’를 중심으로 한 영성 기반 간호활동을 지속하며 교육과 실천, 조직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 속에서 환자 중심의 전인적 돌봄과 교직원 간 상호존중 문화를 형성해 왔다.

부서/단체(정체성 부문)

개인(정체성/경영 부문)

부천성모병원 원창덕 JM은 임상사진을 의료정보 데이터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진료와 교육,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장려상



인천성모병원 손다혜 책임은 조혈모세포 기증을 통해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천한 간호사로서, 환자와 보호자를 배려하는 환자 중심 간호를 꾸준히 실천해 왔다.

개인(정체성 부문)



은평성모병원 송은정 UM은 약 20년간 보험심사 및 적정진료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왔으며, 전례부 활동과 해설단장 역할을 통해 공동체 영성문화 형성에 기여해 왔다.

개인(정체성/교육 부문)



대전성모병원 이상지 교수는 재활의학 전문의로서 중증 장애인을 위한 방문 진료를 장기간 지속하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 왔다.



간호대학

QS 세계대학평가 간호학 분야 국내 2위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이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QS 세계대학평가(QS WUR 2026 Subject) 간호학 분야에서 국내 공동 2위에 올랐다. 이는 전년도 순위와 비교해 4계단 상승한 결과다. 세계 순위에서는 전년도보다 1구간 오른 51~100위권에 포함됐다.

이번 결과는 학계 및 기업계 평판 등 주요 평가 지표 전반에서의 개선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간호대학은 임상 중심의 교육과 연구 경쟁력 강화를 기반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보건 의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간호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선미 간호대학장은 “이번 성과는 교육과 연구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계 수준의 간호교육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성모병원

캄보디아 코미소 의료봉사단, 5일간 총 1600명 진료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사목협의회 의료봉사단이 여성병원장 이학준 신부를 단장으로 소아청소년과 김영훈 교수, 비뇨의학과 한창희 교수, 산부인과 김찬주 교수, 응급 의학과 김기욱 교수를 포함한 29명을 구성해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5박 6일 일정의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다녀왔다. 봉사단은 이번 일정 동안 폭염을 이겨내며 총 1,600명의 환

자 주민 및 탁아소 어린이들을 진료했다.

특히 활동 4일차에는 현지 발전기 사고로 오랜 시간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중대한 위기를 맞기도 했다. 암흑과 찜통더위 속에서도 봉사단의 인술은 멈추지 않았다. 단원들은 미리 준비한 부채로 환자들과 더위를 식혀가며 진료를 이어갔다. 마

지막 5일차에는 현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도 이뤄졌다. 산부인과 김찬주 교수가 코미소 현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의를 진행해 선진 의료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일정을 마무리하며 단원들은 서로에게 캄보디아어로 ‘평화를 빕니다’라는 뜻을 가진 ‘쑉산(Soksan)’을 외치며 축복을 나눴다. 언어가 다르고 환경은 열악했지만, 환자를 향한



마음 하나로 뭉친 단원들은 서로의 평화를 빌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여성병원장 이학준 신부는 “예상치 못한 정전 상황과 무더위, 소통의 한계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준 단원들이 있었기에 기적이 가능했다”며 “단원들이 서로에게 빌어준 ‘쑉산’의 평화가 캄보디아 땅과 우리 병원에도 늘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전했다.

다른 그림 찾기

서로 다른 부분 3곳을 찾아보세요.

응모하기



두 사진 중 서로 다른 3곳을 체크해 사진 촬영 후 QR코드를 인식해 응모해 주세요. (2026. 07. 15 까지)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세 분께 **각 30,000원 상당의 배달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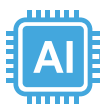


부천성모병원, 2026 통증 캠페인 개최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최근 ‘통증, 참지 말고 말씀하세요’를 주제로 통증 캠페인을 진행했다.

통증캠페인은 암성통증과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통증 조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5월 전국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인식개선 캠페인이다.

부천성모병원은 이번 캠페인에서 통증 관리에 대한 OX 퀴즈와 포춘키, 기념품 제공과 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리플렛을 배포하며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에게 올바른 통증 관리의 중요성을 알렸다.



서울성모병원 컨소시엄 AI 기반으로 임상혁신하는 ‘의료 AX’ 본격 시동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3기 협약식 및
AI 교류회, 미래의료 협력 확대의 장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컨소시엄(서울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국립암센터, 중앙대병원, 건국대병원)이 지난 6월 9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의료 AX를 위한 업무협약식 및 산업체 간 연계 교류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고품질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산업체와 연계해 의료 AI 모델의 임상 검증 및 실증을 지원하는 국가 사업이다. 2020년부터 사업을 수행해 온 서울성모병원은 이번 3기 사업(2026~2028년)에서도 주관 기관으로 선정돼 운영을 총괄한다.

1부 협약식에서 5개 병원은 의료데이터 활용 및 의료 AI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의료 AI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이를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2부 산업체 연계 교류회에서는 9개 기업이 참여해 AI 기술과 성과를 공유했다. 암 진단 보조 및 심정지 예측 등 임상적 성능 검증 방안과 실제 의료현장 적용 사례들이 소개됐다.

행사를 주관한 서울성모병원 스마트병원장 정찬권 교수



(병리과)는 “앞으로도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모델 검증과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해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의료 AX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성모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획득

환자정보 관리 · 의료데이터 표준화
역량 확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한국보건 의료정보원으로부터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환자 진료정보를 전산으로 작성 · 관리 · 보존하는 시스템) 시스템 사용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기간은 2026년 1월 21일부터 2029년 1월 20일까지 3년간이다.

이번 인증은 여의도성모병원이 사용하는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엔유(nU, 가톨릭중앙의료원 통합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2.0에 대해 국가 인증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받은 것이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종합병원 유형3 인증기관으로 등재됐다. 유형3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인증 등급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EMR 시스템의 표준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생성 · 관리, 진료 정보 연계,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수준 등을 국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현재 인증기준은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기능성은 진료정보를 생성 · 저장 · 관리하는 필수 기능, 상호운용성은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와 표준 연계 가능성을, 보안성은 개인정보보호와 시스템 보안 관리 수준을 평가한다.

특히 2주기 인증제에서는 의료정보 표준화와 시스템 간 연계 기능이 강화됐다. 인증지표는 기능성 27개, 상호운용성



20개, 보안성 12개 등 총 59개로 정비됐다. 이는 병원별로 축적되는 의료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향후 진료정보 교류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이번 인증을 통해 환자 진료정보 관리 체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다시 확인했다. 병원은 전자의무기록을 기반으로 진료 과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환자정보 보호와 의료데이터 품질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은평성모병원 민간 의료기관 최초 국민건강보험공단 ‘현명한 선택’ 캠페인 전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이 민간 의료기관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 캠페인은 과잉진료를 줄이고 환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 환자와 의사가 소통해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결정하는 글로벌 운동이다. 국내에는 2016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도입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리적인 의료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그동안 ‘현명한 선택’ 권고안은 공공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적용돼 왔으나, 이번 은평성모병원의 참여로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되면서 합리적 의료이용 문화 확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평성모병원은 민간 의료기관 최초로 기존 개발된 권고안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진료과별 리스트 164개를 진료 현장에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올해 6월부터는 8개 항목을 신규 추가해 총 172개 항목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12월에는 ‘현명한 선택’ 캠페인 심포지엄을 개최해 의료현장에서 얻은 실질적인 성과와 임상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은평성모병원 정승은 부원장은 “현명한 선택은 환자와 의



료진 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핵심적인 가치”라며 “은평성모병원의 앞선 임상 경험이 캠페인 확산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MC 단신

의과대학

후배들을 위해 START의학시뮬레이션센터 100만 원 기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은 최근 한 졸업생이 STAR의학시뮬레이션센터 발전을 위한 기부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의대생 실습 교육과 의료인들을 위한 전문 시뮬레이션 교육 환경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START센터는 이번 기부를 통해 후배들이 더욱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첨단 교육을 받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발 다한증 단일공 로봇수술 성공



서울성모병원 방석환 교수팀이 국내 최초로 다빈치 SP 단일공 로봇을 활용한 후복막 접근 요추 교감신경 절제술로 발 다한증 치료에 성공했다. 복부 측면을 2cm가량 단일 절개해 좁은 후복막 공간에서 정밀하게 신경절을 절제했다. 복막 자극과 흉터를 최소화해 환자의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이번 성공은 비뇨기 암 수술에서 축적된 풍부한 후복막 수술 경험이 기반이 됐다.

술술바람, 환아들과 함께한 희망의 6년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 '술술바람'이 출범 6주년을 맞아 환아와 가족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병실생활 꿀팁'을 주제로 경험과 위로를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꾸며졌다. 특히 술술바람의 돌봄으로 백혈병을 극복한 정서윤 작가가 투병 경험을 담은 만화 전시로 재능기부해 희망을 전했으며, 소설번역 '민들레마음'도 디자인 콘텐츠 제작에 참여해 나눔을 더했다.

의정부성모병원

2026 개원의 학술대회 성료



의정부성모병원이 최근 지역 개원의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 북부 명의 되기' 주제의 '2026년 개원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되어 만성질환 조기진단, 임상 현장 주요 진단법, 질환 관리 전략 등을 공유했다. 병원 측은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개원의들과의 '양방향 회송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천성모병원

서울시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개시



부천성모병원이 서울시 강서구와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운영 기간은 올 7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센터장에는 정신건강의학과 김하연 교수가 선임됐다. 센터는 정신질환 예방, 상담, 자살예방 등 지역주민의 마음건강 회복 사업을 수행한다. 김하연 교수는 예방과 조기 지원 중심의 체계를 강화해 서로의 회복을 응원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은평성모병원

'트루빔 4.1' 도입 축복식 거행



은평성모병원은 최근 최첨단 방사선 암 치료기 '트루빔 4.1' 운영을 기념하는 축복식을 거행했다. 이번 도입으로 총 2대의 방사선 암 치료기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된 은평성모병원은 신속하고 정밀한 맞춤형 암 치료를 제공한다. 트루빔 4.1은 자세대 지능형

아크 치료 기술인 '래피드아크 다이내믹'과 초고해상도 영상유도 시스템인 '하이퍼사이트'를 국내 최초로 동시 탑재했다. 또한 무표식 표면유도 방사선치료 시스템 'SGRT'를 통해 표식 없이도 환자 자세를 정밀하게 조정하고 치료 부위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 절개·통증·표식 없는 '3無'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다.

인천성모병원

암성통증 바로알기 캠페인 진행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와 화의로센터가 본원 마리아홀 로비에서 교직원 대상 '암성통증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증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직원의 관심을 높이하고자 마련됐다. 센터는 통증 조절 정보를 담은 리플릿 배부, OX 퀴즈, 소중한 사람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이벤트를 통해 공감과 위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성빈센트병원

고난도 복잡 암 수술 클리닉 개설



성빈센트병원이 고난도 암 환자의 수술 역량 강화를 위해 '고난도 복잡 암 수술 클리닉'을 개설했다. 클리닉은 초고난도 케이스인 골반장기적출술과 복강내 온열항암화학요법(HIPEC) 등을 전문으로 시행한다. 특히 국내 유일의 국제 협력 그룹 'PelvEx Collaborative' 참여 기관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으며, 전 과정을 표준화한 재활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로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는다.

동정

*기관별 / 가나다 순

'병원 브랜딩의 마지막 공식' 발간



보건의료경영대학원 박병태 연구교수가 김석범 원장과 공동 집필한 '병원 브랜딩의 마지막 공식'을 출간했다. 이 책은 환자와의 신뢰와 진정성을 중심으로 한 병원 경영 및 마케팅의 본질을 담았다. 저자는 핵심 키워드로 '하트 셰어(Heart Share)'를 제시하며 시장 점유율 경쟁을 넘어 환자의 마음에 신뢰를 쌓고 진심을 나누는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국의학교육학회 학술상 교육부문 수상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교실 강화선 교수가 2026년도 한국의학교육학회 학술상 교육부문을 수상했다. 이 상은 의학교육 발전에 기여한 우수 의학교육자에게 수여된다. 강 교수는 교수개발 프로그램과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기획·운영하며 교수 역량 개발과 의학교육의 질 향상

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현장 교육활동과 성과를 종합 평가하는 교육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응용의학 유일 과기부 기초연구 리더연구자 선정



서울성모병원 장기국 교수가 과기부의 '2026년 기초연구사업 리더연구자'로 선정됐다. 장 교수는 올해 선정자 중 응용의학 분야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으며, 9년간 총 72억 원을 지원받는다. 연구 주제는 '죽상동맥경화반 퇴행 유도 기반 차세대 난치성 심혈관 질환 치료 전략'이다. 장 교수는 30년 가까운 임상 경력 동안 세계적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며 다양하고 꾸준한 학술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한수혈학회 차기 이사장 선출

은평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임지향 교수가 지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제45차 대한수혈학회 학술대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7년 1월부터



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대한수혈학회 측은 임지향 교수가 쌓아 올린 탁월한 학술적 연구 성과와 학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높이 평가해 차기 이사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회장 취임



인천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김진조 교수가 '2026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제8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올 6월부터 1년이다. 학회는 비만·대사질환 수술 치료 분야의 학술 발전과 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전문 단체다. 현재 인천성모병원 비만대사수술센터장인 김 교수는 고도비만과 대사질환 치료 및 수술 분야에서 활발한 진료와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수정 쇼호스트, 미래 간호사와 환자 향한 나눔 실천

간호인재 양성과 의료환경 개선 위해 가톨릭중앙의료원에 기부금 전달

국내 패션·주얼리 분야 대표 쇼호스트인 이수정 쇼호스트가 간호인재 양성과 환자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지난 6월 8일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민창기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선미 간호대학장, 박승기 서울성모병원 진료부원장, 이성중 후원회사무국장, 이수정 쇼호스트가 참석했다.

이수정 쇼호스트는 평소 환자 지원과 인재 양성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생명을 존중하는 환자 중심

의료기관'이라는 가치에 공감해 나눔을 실천했다.

기부금은 서울성모병원 발전기금과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의료환경 개선과 '이수정 장학금' 조성을 통해 우수 간호인재 양성을 지원하게 된다.

이수정 쇼호스트는 "환자들이 더 편안한 환경에서 진료받고, 좋은 간호사의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창기 의료원장은 "소중한 뜻이 교육과 진료 현장에서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 발전기금으로 '고령자 운전 시뮬레이터' 구축

황규백 화백 · (주)포럼에이트코리아 기부가 빛어낸 기부 선순환의 결실

서울성모병원이 고령자 및 인지저하 환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교육할 수 있는 '고령자 운전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사업은 황규백 화백이 2024년 가톨릭중앙의료원에 기탁한 신경과 발전기금 5,000만 원에서 시작됐다. 황 화백은 초고령사회 교통안전 문제 해결과 인지기능 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해 기부를 결정했으며, 병원은 이를 활용해 운전 능력 평가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도입했다.

이후 교통안전 솔루션 전문기업 (주)포럼에이트코리아가 시

뮬레이터 전용 하드웨어를 추가 기부하면서 실제 도로 환경을 구현하고 운전 행태를 분석할 수 있는 통합형 교육 시스템이 완성됐다.

이번 시뮬레이터는 국내 대학병원 최초 사례로, 향후 의과대학생과 전공의 교육은 물론 고령자 인지기능과 운전 안전 연구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성모병원 양동원 교수는 "기부자와 기업의 뜻이 연구와 교육 현장에서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5월 신규 약정자 명단



가톨릭중앙의료원				서울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CMC신용협동조합				(주)우광기전				이덕겸 매월				김혜림 매월				김주현 매월			
김용지	300,000원	박현철	500,000원	KRX국민행복재단				익 명	10,000원	이상훈	10,000,000원	박수민	1,000,000원	김혜림 매월	10,000원	김형미	10,000원	김형미	10,000원
송충현	100,000원	안동신	20,000,000원	LIN XIANG LAN 매월	20,000원			익 명	30,000,000원	최상준	10,000,000원	박지해 매월	5,000원	배운진 매월	5,000원	서지영	500,000원	서지영	500,000원
안용식	12,000,000원	염수진 매월	10,000원	강은진	10,000원			익 명				부천성모병원 모금함		부천성모병원 모금함		이수림	300,000원	이창석	200,000원
이덕자	6,000,000원	이정운	50,000,000원	구세주(구도건 가족)	1,000,000원			장 하운	1,597,400원			석재진	1,000,000원	이미아 매월	10,000원	익 명	1,200,000원	익 명	1,200,000원
익 명	30,000원			김기표 매월	30,000원	김길성	1,000,000원	조경아 매월	10,000원	조은미	2,005,900원	이유빈 매월	5,000원	황윤서 매월	5,000원	주식회사 명일커튼월	1,000,000원	주식회사 명일커튼월	1,000,000원
대학(성의교정)				김명옥	30,000원	김소연 매월	3,000원	조봉래 매월	5,000원			최상준	10,000,000원			최상준	10,000,000원	최상준	10,000,000원
(주)더블유앤에이치	1,000,000원			김수기	30,000원	김수정	10,000원	주식회사 한일디아이	30,000원	최문선	10,000,000원	최상준	100,000,000원			최상준	10,000,000원	최상준	10,000,000원
(주)디지털대성	11,624,700원			김용수	300,000원	김지현 매월	5,000원	채수현 매월	30,000원	황규호 매월	200,000원								
가톨릭의대 총동문회	3,000,000원			김지현 매월	5,000원	김진희 매월	10,000원	최상준 매월	3,000원										
강인구	14,400,000원	금교우	2,400,000원	김충한	10,000,000원	김형우 매월	10,000원												
김병철	9,600,000원	김어진	2,400,000원	김형준	500,000원	나유나 매월	10,000원												
김장현	7,200,000원	김중일	4,800,000원	성모자선회 못말리는 나눔 마켓 현금수입	12,704,900원														
메가스터디교육(주)	1,000,000원			손미연 매월	10,000원	송수민 매월	10,000원												
박성준	2,400,000원	박진희	1,000,000원	송수민 매월	10,000원	송수민 매월	10,000원												
백수정	500,000원	변영섭	1,000,000원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233,100원														
성남석	500,000원	성남석	4,500,000원	오귀임	25,000원	오귀임	25,000원												
송선영	100,000원	송정국	2,400,000원	오영환	10,000,000원	이병란	200,000원												
유동도	2,400,000원	유지수	50,000원																
윤지광																			
의과대학 10회동기회	10,000,000원																		
이종택	1,200,000원	이준근	3,000,000원																

가톨릭중앙의료원 후원회사무국 발전기금팀

TEL. 02-2258-7992~3, 7995~7 FAX. 02-2258-7994 E-mail. cmcfund@catholic.ac.kr 카카오톡. "CMC 발전기금" 검색

▶ 생명존중기금(일반후원) 입금 계좌 : 우리은행 1005-700-920886 (예금주: 가톨릭중앙의료원)



모바일 후원
바로 가기

59

성빈센트병원

개원 59주년 기념식 거행

“59년의 지혜와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의료 도약”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개원 59주년(6월 3일)을 맞아 6월 5일(금) 별관 6층 성빈센트홀에서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평가 우수부서 시상식에 이어 장기근속자 및 모범직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사업계획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식에서는 구매관리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최우수상은 수술실 마취, 우수상은 4개 부서(P팀, 기능검사팀, 55병동, 진료지원간호팀)가 각각 수상했다.

장기근속자 표창은 35년 근속 11명, 30년 근속 37명, 25년 근속 30명, 20년 근속 24명, 15년 근속 19명, 10년 근속 47명이 받았으며, 모범직원 표창은 19명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병원장 임정수 콜베 수녀는 기념사를 통해 “오래된 것이 지닌 지혜와 신뢰는 미래 혁신의 든든한 기반이 되는 만큼, 우리가 축적해 온 가치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의료 기술 위에 인간미 넘치



는 따뜻함이 조화를 이루는 성빈센트병원만의 독보적인 치료 전문성을 완성하고, 우리의 고유한 영성을 더욱 심화해 새로운 미래와 도약을 향해 다 함께 힘차게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인천
성모

교보문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최근 교보문고 송도점·인천점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 및 사회공헌 활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건강한 기부 문화와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김수현 인천성모병원 행정부원장, 배상규 교보문고 송도점장, 황재연 교보문고 인천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인천성모병원은 원내 도서바자회를 개최하고, 교보문고는 바자회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사전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취약계층 환자 지원 등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향후 환자와 보호자, 교직원 등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나눔 활동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수현 행정부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제4회 연명의료결정제도 바로알기’ 캠페인 진행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최근 본원 신관 1층 로비에서 ‘2026년 제4회 연명의료 결정제도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인천성모병원 의료윤리사무국 주관으로 진행된 것으로,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방향과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향후 임종기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에는 전문 상담 인력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상담소’가 운영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와 제도 전반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OX 퀴즈 이벤트도 진행돼 내원객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캠페인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 중단 항목과 제도 절차를 설명하는 홍보물을 함께 제공해 이해도를 높였다.



대전
성모

유방암·갑상선암 환자 패스트트랙 시행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이 유방암,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패스트트랙(Fast-Track)’ 시스템을 도입,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유방암, 갑상선암 의뢰 환자나 초진 후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는 외래 진료 당일 초음파 및 조직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조직검사 결과를 검사 후 최소 2일 이내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 환자의 불안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진단부터 치료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병원은 암 진단에 따르는 길고 번거로운 절차와 치료 지연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과(선우영, 김봉균, 김동주), 이비인후과(김현범) 전문의가 직접 초음파와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필요시 다학제 협진을 통해 신속하게 치료 방향을 결정, 수술 및 재활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시스템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유방암의 경우 외과(유방), 성형외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중앙혈액내과, 방사선종양학과, 갑상선암의 경우 외과(갑상선), 이비인후과, 내분비내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중앙혈액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등의 의료진이 다학제 진료를 통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

선우영 외과(유방갑상선) 분과장은 “암은 진단 과정부터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불안과 부담을 주는 질환”이라며 “이번 신속 진료 시스템 도입으로 검사와 치료까지의 시간을 줄여 환자들이 보다 빠르고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암성통증, 조절할 수 있어요’ 캠페인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최근 ‘암성통증, 조절할 수 있습니다’를 주제로 한 2026년 통증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중앙호스피스센터 주관 및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들이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 환자와 보호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암성통증 조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암성통증 조절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마련됐다.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팀은 통증 관리에 대한 O, X 퀴즈와 호스피스 완화의료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안내 리플릿 및 기념품을 배포했다.

강전용 병원장은 “암성통증은 암환자들이 겪는 가장 흔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증상이지만 다행히 약물치료와 통증관리 원칙에 따라 치료하면 조절할 수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앞으로도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단일공 로봇수술'의 새 지평을 열다

국내 최초·세계 두 번째, 3기 신장암 고령 환자 '후복막 단일공 로봇수술' 성공
발 다한증의 근본적 해결, 국내 첫 단일공 로봇 '요추 교감신경절제술' 성공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가 단일공(SP) 로봇 플랫폼을 활용한 후복막 접근법으로 최고난도 신장암 수술과 요추 교감신경절제술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최소침습 수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번 성과는 수술 공간이 협소하고 해부학적 기준점이 부족해 고난도로 꼽히는 후복막강(요구리 공간)에서 이뤄낸 기술적 결실이다.

비뇨의학과 홍성후 교수팀이 성공한 하대정맥 혈전 동반 3기 신장암 수술은 비뇨기암 영역에서 가장 위험한 수술 중 하나다. 대량 출혈과 급성 색전 등의 위험이 따르는 하대정맥 혈전 제거와 동시에, 과거 개복수술 이력으로 인한 극심한 복강 내 장기 유착까지 극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홍 교수팀은 복막을 경유하지 않고 신장과 혈관에 직접 접근하는 '후복막 단일공 로봇수술'을 시행, 단 하나의 절개창만으로 종양과 혈전을 정밀하게 제거하며 복강 유착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밀한 해부학적 숙련도는 난치성 질환인 발 다한증 치료로도 이어졌다. 비뇨의학과 방석환 교수팀은 다빈치 SP 로봇을 이용해 복부 측면 2cm 절개창으로 후복막강에 진입, 하대정맥 인접부의 L3 요추 교감신경절을 정밀 절제하는 데 성공했다. 기존 복강경 수술의 한계였던 장 유착과 복막 자극 위험을 최소화하고, 주변 주요 혈관의 손상 없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했다. 속옷 라인을 따라 절개해 미용적 만족도와 빠른 일상 복귀까지 견인했다는 점에서 환자 중심의 의료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6년 1월 기준 단일 진료과 로봇수술 7,000례를 돌파한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는 이처럼 암 질환에 머무르지 않고 해부학적 공간을 공유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단일공 로봇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종양의 정밀한 절제와 장기 기능의 보존, 나아가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달성하고 있는 서울성모병원은 글로벌 최소침습 치료를 선도하는 K-메디컬의 위상을 입증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인증



3년 인증

✓ 2026년 1월 21일 ~
2029년 1월 20일 ·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통합 의료정보시스템 nU 2.0 인증

✓ 기능성 · 상호운용성 ·
보안성 3개 영역, 총 59개
인증지표 충족



환자 안전과 의료데이터 품질 강화

✓ 진료정보 보호 · 의료기관 간
연계 ·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확대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THE CATHOLIC UNIV. OF KOREA YEUIDO ST. MARY'S HOSPITAL

피부와 소식

아토피·원형탈모, 원인 찾아 '근본 치료' 하세요!

피부과 이영복 교수, 맞춤형 면역치료 및 유전자 기반 탈모 치료 본격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피부과 이영복 교수가 현대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 난치성 질환인 '아토피피부염'과 '중증 원형탈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근본 치료를 시행합니다.

만성 아토피피부염, "집먼지진드기" 면역치료로 체질개선

아토피, 천식, 비염은 원인 물질을 제어하지 않으면 증상이 번지는 '알레르기 행진' 특성이 있습니다. 이영복 교수는 가장 큰 원인인 집먼지진드기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설하 면역치료제 '아카리작스'를 통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돕습니다.

- **간편한 복용**: 하루 한 번 집에서 허 밑에 알약을 녹여 먹는 편리한 방식입니다.
- **높은 안전성**: 만 5세 이상 소아부터 성인까지 폭넓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약물 감소 효과**: 가려움증과 염증을 낮춰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 사용 빈도를 줄입니다.

중증 원형탈모, 유전자 검사로 맞춤형 표적 치료

자가면역 이상 등으로 생기는 원형탈모는 정확한 원인 파악이 최우선입니다. 이영복 교수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약물을 예측하여 최신 표적치료를 시작합니다. 최신 표적 치료 옵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치료 사각지대에 있던 만 12세 이상 청소년까지 치료 기회를 넓혔습니다.

- **리트폴로(Litfulo)**: 청소년 및 성인 모두에게 승인된 안전하고 유효한 전신치료제 + JAK억제제입니다.
- **올루미언트(Olumiant)**: 최근 청소년 원형탈모 환자에게도 사용가능한 치료제, 임상에서 우수한 모발 회복 효과가 입증된 검증된 JAK 억제제입니다.

피부과 이영복 교수 한마디

알레르기과 탈모는 정확한 검사를 통한 조기 치료가 핵심입니다.

원인물질을 이겨내는 내몸의 힘을 키우고 초기에 면역치료를 시작하면 알레르기 질환을 극복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맞는 약제를 찾아 중증원형탈모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더 나은 임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진료 및 처방 문의: 의정부성모병원 피부과 외래

횡문근융해증이란?

골격근(횡문근)이 급격히 손상되면서 근육 세포 내 성분이 혈액으로 유출되는 질환입니다.

특히 근육 속 미오글로빈(Myoglobin)이 다량으로 혈액에 방출되면 콩팥(신장)의 세뇨관을 막고 손상시켜 심각한 급성 신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발생 원인

- ✓ 외상성 원인: 타박상, 장시간 압박, 장기 부동자세 등 직접적인 근육 손상
- ✓ 비외상성 원인: 과도한 운동, 열사병, 저나트륨혈증
알코올 및 약물
갑상선 및 부신 기능 이상 등 대사내분비 질환

○ 주요 증상

- ✓ 근육통 및 근력 저하
- ✓ 콜라색 또는 붉은색 소변

○ 예방법

- ✓ 자신의 체력에 맞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기
- ✓ 운동 강도는 단계적으로 서서히 증가시키기
- ✓ 과격한 운동 및 장시간 부동자세 피하기
- ✓ 운동 중 충분한 수분 섭취 및 휴식 유지

○ 신장내과 의료진

	민지원	고은정	강동혁	윤소정
오전	수, 목, 금	월, 화	월, 목	수, 금
오후	월	수, 목	화, 금	월





전화예약
1811-7755
평 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12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 획득

www.cmcep.or.kr

EBS 명의

제 975회 (2026.06.19 방송) '용종, 떼어내면 끝? 대장에 숨겨진 두 번째 위험편'

‘대장암 명의’ 김진수·김형진 교수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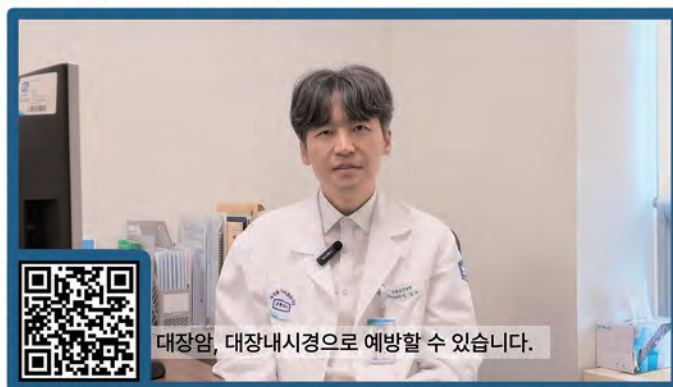
김진수 교수(소화기내과)
치료 내시경(대장암, 용종)

김형진 교수(대장항문외과)
대장암 수술(복강경, 로봇)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동아일보] 암 전에 잡는다... 대장암
예방 기본은 내시경 통한 ‘용종 제거’



▶ [은평성모병원 유튜브]
EBS 명의 촬영 비하인드 영상